

중무식 송년사

한 해 동안 중앙중무기관과 산하기관, 그리고 직영사찰 등에서 열심히 복무해 주신 교역직과 일반직 중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역량이 다사다난의 한 해를 원만하게 헤쳐가는 선명한 지혜가 되어주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유월 종단쇄신위원회가 1년여의 노고를 회향하며 이루어낸 성과는, 우리 종단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의미이자 가능성이었습니다. 종단의 위기가 소란과 분쟁으로 흐르지 않고 안정의 기조 속에 쇄신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도 총무원장 선거라는 종단적 사안으로 인해 후속적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였지만, 선거의 원만한 회향과 제34대 총무원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덧붙여 안정의 기반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결국 더 높은 수준과 더 나은 발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방심과 방만을 버리고 종단과 불교가 발전하고 사회와 시대에 부응하고자 한 올해의 성과들이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된 나무의 단면에는 한해 한해를 기록해 놓은 듯이 선명한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 낸 올해의 성과는 종단의 나이테로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며, 내년에 만들어 갈 나이테의 모양과 크기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한해 한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겠다는 발원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겠다는 다짐은 이미 수년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 사회가 갖는 높은 관심과 기대에 비추어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사찰과 승가조직 그리고 수행생활의 전통과 관습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증가하는 관심과 요구에 충분히 조응할 수 있도록 민첩하고 튼튼한 변화의 기류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체에 비유해 보면 중앙중무기관은 두뇌와도 같고 심장과도 같습니다. 자부

심을 가지고 앞서가는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하는 한편, 어떻게 지방의 조그만 사찰과 신도에게까지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좀 더 봉사하고 희생할수록 그만큼 많은 사찰과 불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반대로 한 두 사람의 조그마한 오해와 실수로도 전체 조직이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항상 스님들과 신도들을 잘 받들어 왔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위와 직위는 상대방이 인정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진정으로 남에게도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며칠의 휴식시간이기는 하지만 나의 울림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느껴보기 바랍니다. 종도와 불자들에게 우리가 더 신심있고 능력있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에 발생한 몇몇 사례와 같이 우리의 주변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건강의 문제가 항상 가까이에 숨어 있습니다. 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고 스스로의 건강도 잘 챙기기 바랍니다.

우리 구성원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이를 넘어 사회의 여러 곳에서도 우리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선대의 가르침 속에서 순간순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종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종도와 화쟁, 그리고 자비문중이라는 수승한 가치를 실로 체험하는 슬기로운 한 해였으며, 총무원장이든 부실장이든 부족한 공덕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수고로 채워준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불안과 불편은 다 떨어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라며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매사에 떳떳하고 바르게 종무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합니다. 종정예하와 원로스님의 공덕과 덕화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불기2557년 12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